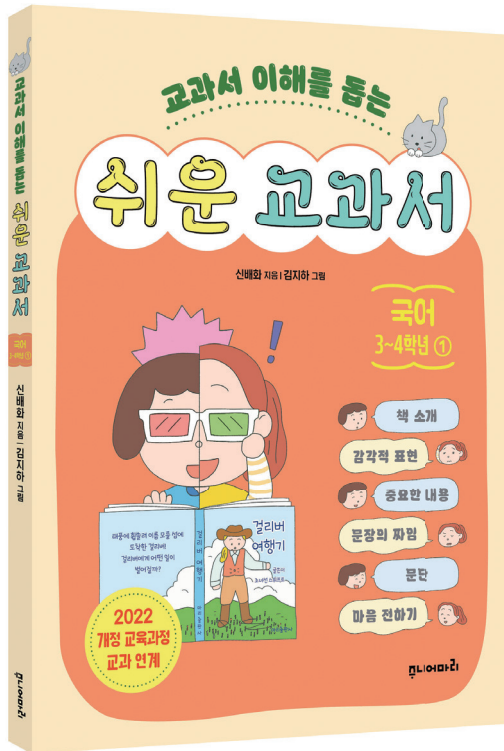




교과서 이해를 돕는 쉬운 교과서

국어 3학년 1학기

신배화 지음 | 김지하 그림 | 주니어마리

분야: 초등학교 국어

대상: 초등 3~4학년

주제: 책 소개, 감각적 표현, 문장,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마음 전하기

교과 연계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3~4학년	3학년 1학기	독서 단원: 읽을 책을 소개해요
		1단원: 생생하게 표현해요
		2단원: 분명하고 유창하게
		3단원: 짜임새 있는 글,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글
		매체 단원: 서로 배려하며 소통해요
		4단원: 중요한 내용을 찾아요
		5단원: 인물에게 마음을 전해요
		6단원: 자신 있게 읽고 써요

책 소개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책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보세요.
그 외 또 어떤 방법으로 책 소개를 하면 좋을지도 써 보세요.

《쉬운 교과서 국어》 3~4학년 ① 12~23쪽

책 제목		
글쓴이	그린이	
출판사		
소개하고 싶은 내용		
소개하고 싶은 까닭		
소개하고 싶은 다른 방법		



시와 감각적 표현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 낭송해 보고, 시에서 감각적 표현을 찾아 보세요.

《쉬운 교과서 국어》 3~4학년 ① 24~33쪽

1. 어떤 시를 골랐나요? 써 보세요.

2. 시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아 보세요.

3. 다음과 같이 차분히 시를 낭송해 보세요.

- 시의 분위기를 생각해요.
- 시 속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어요.
- 행과 행, 연과 연 사이는 쉬어 읽어요.
- 마음에 드는 부분은 강조해서 읽어요.



4. 시에서 감각적 표현을 찾아 써 보세요. 없다면 시를 보고 떠오르는 감각적인 표현을 써 보세요.

문장의 주어부와 서술부 쓰기

문장이 되려면 주어부와 서술부가 필요해요.

《쉬운 교과서 국어》 3~4학년 ① 34~43쪽



→ 그림의 내용을 문장의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누어 써 보세요. <보기>에서 찾아 써도 좋아요.

< 보기 >

훈장님이, 한 아이가, 가운데 아이가,
 몇 명의 아이는,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책을 펴니다, 울고 있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즐거워 보입니다, 서당입니다,
 선생님입니다, 학생입니다.



누가/무엇이

훈장님이

어찌하다(움직임)

울고 있어요.

누가/무엇이

가운데 아이가

어떠하다(상태, 성질)

즐거워 보입니다.

누가/무엇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엇이다

훈장님이예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쓰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글로 써 보세요.

《쉬운 교과서 국어》 3~4학년 ① 44~59쪽

➔ 하나의 중심 문장과 여러 개의 뒷받침 문장을 써 보세요.

- 중심 문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은 ~입니다.
- 뒷받침 문장: 왜냐하면 ~ 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은/는 ()입니다.

왜냐하면

~~~~~

~~~~~

~~~~~

~~~~~

~~~~~

~~~~~

~~~~~

~~~~~

이런 이유로 저는 ()이/가 가장 좋습니다.

좋아하는 것의 예: 음식, 계절, 사람, 장소, 동물, 물건, 인형, 운동, 놀이,
장난감, 친구, 과목, 연예인, 음악, 교통수단, 기념일, 색깔 등

매체 예절 익히기

공감과 소통을 높이는 매체 예절을 알아봐요.

《쉬운 교과서 국어》 3~4학년 ① 60~69쪽

➔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생각하며 빈칸에 적절한 댓글을 써 보세요.

글쓴이와 댓글을 쓴 사람은 모르는 사이예요.

댓글을 쓸 때는 칭찬, 공감, 비슷한 경험을 말하거나 궁금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어요.

제목: 뽀삐를 소개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김○○입니다.
우리 집에 사는 강아지 뽀삐를 소개하고 싶어요!

뽀삐 소개

이름: 뽀삐

나이: 3살

견종: 골든 리트리버

성격: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 공놀이, 산책, 간식

뽀삐의 특별한 점

뽀삐는 정말 똑똑해요! 앉아, 기다려, 손
같은 명령어를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줘서 기분이 좋아져요.

뽀삐는 제 단짝이랍니다.

↳ 댓글 달기 :

↳ **민지** 뽀삐 완전 귀여워요! 저도 강아지 갖고 싶어요~ 뽀삐랑 놀고 싶어요!

10분 전 좋아요 2개 답글 달기

↳ **수한** 우와! 뽀삐가 명령어도 알아들어요? 대박이에요!
저희집 고양이는 이름만 불러도 안와요ㅋㅋ

35분전 좋아요 5개 답글 달기

마음 전하기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 보세요.

《쉬운 교과서 국어》 3~4학년 ① 82~91쪽

➔ 가족 또는 친구, 선생님 등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상황을 떠올리며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 보세요.

	
받는 사람	(에게)/께
첫인사	
글을 쓰는 이유, 상황 전하려는 내용	
전하고 싶은 마음, 생각이나 느낌	
끝인사	
쓴 날짜	월 일
쓴 사람	(쓴)/올림
추신 (끝에 더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내 생각 쓰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읽으며 내 생각을 자신 있게 써 봐요.

《쉬운 교과서 국어》 3~4학년 ① 92~103쪽

➔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에 유의하며 써 보세요.

-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유튜버가 ‘모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유튜버는 본인과 경쟁 관계인
유튜버의 얼굴을 두꺼비 사진으로 가렸어요.
대법원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기에
모욕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했어요. 이어
“얼굴을 가리려면 모자이크로도 충분했을
텐데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보면
고의적”이라고 했어요.

이번 판결은 딥페이크로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 경고장을
날린 셈이에요. 타인의 이미지를 마음대로
바꿔 퍼트리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려는
것이죠. 다양한 소셜미디어 (SNS)의 발달로
이런 합성물은 순식간에 퍼져요. 작은 장난이
다른 사람에겐 큰 모욕이 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출처: 어린이조선일보 24.11.27일자 기사

● 글쓴이 의견: 작은 장난이 다른 사람에겐 큰 모욕이 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 자신의 생각:

④ ~⑩라고 생각한다/찬성한다/반대한다/왜냐하면/궁금하다/~하면 좋겠다/경험이 있다/만약 등의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정답 및 예시

➔ 2쪽 예시

책 제목: 모두의 스타트

글쓴이: 신배화

그린이: 불곰

출판사: 책읽는곰

소개하고 싶은 내용: 휠체어를 탄 주인공 진수영이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수영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자 주인공과 두 친구들이 운영측에 당당하게 소리를 낸다. 결국 아이들이 목소리는 방송을 타게 되고 규정만을 내세우던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다.

소개하고 싶은 까닭: 이 책은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의 이동을 특별한 배려가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바라보게 한다. 또, 당연해 보이는 공간이 누구에게는 출발조차 시작할 수 없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전한다. 이 책은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소개하고 싶은 다른 방법: 책을 보여주며 소개하기/노래로 만들어 소개하기

➔ 3쪽 예시

1. 줄넘기
2. 빙글빙글 땅이 돌고 빙글빙글 하늘이 돌고
4. 빙글빙글/사뽀사뽀/폴짝폴짝/조심조심/살짝살짝/사뽀사뽀

➔ 4쪽 정답

누가/무엇이	어찌하다(움직임)
훈장님이	가르칩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학생들이	책을 폈어요.
누가/무엇이	어떠하다(상태, 성질)
가운데 아이가	슬퍼 보입니다./서러워 보입니다.
몇 명의 아이는	즐거워 보입니다.
누가/무엇이	무엇이다
이곳은	서당이에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학생이에요.
수염이 난 사람은	훈장님이에요.

➔ 5쪽 예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도서관입니다.

왜냐하면 재미있는 책이 가득해서 마치 보물창고에 온 것 같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골라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신나고 즐겁습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지식이나 신기한 사실들을 가득 배울 수 있어서, 도서관에 다녀오면 제가 한 뼘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 뿌듯하기 때문입니다.

➔ 6쪽 예시

땃글 달기: 저도 뽀빠 같은 단짝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 7쪽 예시

받는 사람: 할머니께

첫인사: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네요.

글을 쓰는 이유, 상황, 전하려는 내용: 가을이 되니 작년 가을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갔던 생각이 떠올라 편지를 씁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 생각이나 느낌: 할머니,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얼굴만 떠올리면 기분이 좋고 용기가 솟아요.

받는 사람: 누리에게

첫인사: 누리아, 안녕? 나 마리아.

글을 쓰는 이유, 상황, 전하려는 내용: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네 기분이 좋지 않은 거 같아 편지를 써.

전하고 싶은 마음, 생각이나 느낌: 혹시,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리고 지금은 기분이 좀 괜찮아졌어? 걱정되니 기분 괜찮아졌으면 연락해 줘.

➔ 8쪽 예시

자신의 생각: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음대로 합성하여 퍼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첫째, 사진 속 친구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합성된 사진이 돌아다닌다면 누구나 부끄럽고 속상할 것입니다. 장난으로 가볍게 올린 사진 한 장이 친구에게는 학교에 오기 싫을 정도의 큰 괴로움이 됩니다.

둘째,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예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어 보여도 남의 얼굴을 허락 없이 바꾸는 것은 나쁜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친구의 소중한 모습을 보호해 주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함부로 합성해서 퍼뜨리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